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5. 4.(목) 11:00 < 5.5.(금) 조간 > 배포 2023. 5. 4.(목)

분산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스타트업 기업이 주도한다

- 에너지 수요반응 관리 기업 독려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통합발전소 추진 방향 모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5월 4일(목)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그리드위즈를 방문하였다. 그리드위즈는 2013년 창업한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 기업(신생 기업)으로, 수요반응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에너지 저장장치와 전기차 충전기를 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그 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발전소 사업도 진출을 계획 중이다.

통합발전소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 소규모로 분산되어 생산되는 전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어·관리하여 수요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는 새로운 유형의 발전소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통합발전소 활성화를 위해 ❶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추진하는 한편, ❷통합발전소 사업자와 전력계통운영자 간 협조체계 구축, 통합발전소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시장규정 개발, 전력 도매시장 외 수요자원 시장 확장을 위한 모델 개발 등의 연구개발(R&D)**를 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 국회 상임위 통과(3. 23.) 및 법사위 심의 중

** 계통유연자원서비스화 기술개발('23.~'26, 263억 원, '23년 37.75억 원)

그리드위즈 김구환 대표는 "제주지역 플러스 전력수요관리(DR) 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발전소 사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통합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제도화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의 확산과 더불어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기능할 수 있는 통합발전소의 역할이 중요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향후 산업부는 통합발전소 제도 도입 등을 필두로, 분산형 전원 확대, 분산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기업(신생 기업) 육성,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육성 등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책임자	과 장	박상희	(044-203-3920)
		담당자	사무관	계승모	(044-203-390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